

Nr. 553 (2024 - 09-10)

수확



Licht und Salz

수확

편집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에는 두개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리는 명절입니다.

구약성서 잠언 10장 5절에서는 “여름에 모아들이는 이는 사려 깊은 아들이고 수확철에 잠만 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때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고 영적 빈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영적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여, 씨 뿌리는 이에게는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야서 55장 10-11절)



7월 6일 에얼랑엔 공동체 Pfarrfest 1

수확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성령 쇄신 묵상회 소감 / 우시현 아그네스, 전정화 미카엘라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Neujahr)

3,4월 세례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7월 6일 에얼랑엔 공동체 Pfarrfest 2



7월 6일 에얼랑엔 공동체 Pfarrfest 3

추석과 사극린(捨克吝), 탐욕을 경계하여라!

허광철 요셉 신부님

9월 17일은 추석, 한가위이다. 비록 고국을 떠나 명절답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모든 것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래 본다.

추석(秋夕). 가을 추 저녁 석, 한자이지만 가을 저녁, 목가적 느낌도 들고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드는 기분 좋은 말이다. 추석의 어원을 찾아보니 유교의 예기인지, 사마천의 사기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천자 춘조일 추석월(“天子 春朝日 秋夕月, 천자는 봄에 태양에 제사를 올리고, 가을에는 저녁달에 제사를 올린다.”)에서 유래하였다 한다. 유교의 절기는 잘모르겠고,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자면 **봄에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가을 저녁 짙은 달을 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리다.**”

결국 추석의 주제는 무엇보다 감사이다. 인류고사 이래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 온 인류는 어느 문화권에서든 수

확에 감사드리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문화권에 따라 그 대상은 달랐다. 해와 달에게, 땅과 바다에, 산과 돌에... 그래도 지혜로웠던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감사의 대상을 하늘과 조상들에 두었다.

우리 조상들은 희미하게나마 하늘에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대상은 확실하다. 바로 하느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잔치를 올려 드리는 날이 추석이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창조신앙 종말신앙과 연결된 감사이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와 연결된 종말신앙, 우리의 마지막 역시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마쳐지리라’ 희망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바로 추석은 거창하게 말하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모두에 대해 감

사를 드리는 자리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 중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날’, 그것이 추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이 추석날이 되어야 하리라.

추석의 두 번째 주제는 ‘탐욕을 경계하라’이다. 복음은 외친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루카 12, 15-21)

모든 인간의 욕망 내지 갈망은 자연스런 인간의 생존본능일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탐욕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망치고 나아가 생명을 해치는 죄요 결핍이라는 것이다.

17세기(1614년) 판토하(Diego de Panthja)라는 스페인 선교사 신부님이 지으신 한자로 된 칠극이라는 책이 있다. 소위 7죄종(교만·질투·탐욕·분노·식탐·음란·나태)의 인간을 둘러싼 7가지 병든 마음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7가지 처방에 관한 내용이 칠극이다.

탐욕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칠극의 사극린 몇부분을 소개하까 한다. 사극

린(捨克吝): 자선으로 인색함을 극복한다. ‘인색을 이기기 위한 나눔’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탐욕이라는 죄악은 무엇과 같나? 바보같은 원숭이가 움켜쥔 같지. 돈 꺼낼 땐 눈썹 먼저 찌푸려지고, 받을 때는 햇빛의 고움 다투네. 한평생 천 번 넘게 헤아려봐도 죽을 때는 그저 텅 빈 두 손뿐이지. 어이해 부지런히 자신을 이겨 은혜로 인색함을 갚만 하리오?”(정민 역, 칠극, 2020년, 207쪽)

4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음에 놀란다. 텅빈 두손, 은혜로 인색함을 극복하라 알려준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간다고 하자. 함께 가고 있을 때는 누가 개 주인인지 알기가 어렵다. 헤어진 뒤에 따라가는 것을 살펴보면 그제야 (주인이 누굴지) 알게 된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함께 가므로 세상의 재물 또한 너를 따른다. 그래서 잘못 알아 너의 재물이라고 말한다. 세상을 떠날 때에 재물은 세상을 따르지 너를 따르지 않으니, 어찌 너의 재물이겠느냐?

바로 세상의 재물이 뿐이다." (칠곡 223쪽)

까, 무릎을 치게 되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탐욕은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됨을 지적한다. 코로나와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 우리는 인류가 자연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 탐욕을 통렬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잠시 맡겨진 것들인데, 훗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극린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이야기.

어떤 이가 말했다. "천주의 능력은 한없이 있는데, 어쩌서 가난한 사람의 근심을 직접 구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는 질문이다.)

내가 말했다. "주께서 곡식이 있어서 사람에게 명하여 나눠주게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훔쳐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다면, 어찌 천주의 허물이겠는가?"

사람은 모두 천주의 자식이다. 천주께서 주신 세상의 재물이면 세상 사람을 구하고도 남는다. 다만 너희가 탐욕으로 이를 독차지하고, 인색함으로 굳게 붙들어서, 천주께서 남에게 고쳐 나눠주라고 하신 명을 듣지 않는다. 과연 천주께서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너희의 탐욕과 인색이 너무 심한 것일까?

저 가난한 사람은 굶고 배고프니, 너희가 남은 재물이 있다면 마땅히 입혀주고 먹여주어야 한다. 그들이 입지도 먹지도 못해서 죽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죽인 것이다. 천주께서 틀림없이 너희의 행위를 꾸짖으실 것이다." (칠곡 274쪽)

조금 길지만, 400년전 판토하 신부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소개해 보았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 마저 차지하려는 욕망, 자신의 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욕망, 인간의 모든 욕망에 맞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며, 나누어 먹고 마시라 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리는 이유도 ‘하느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의 결핍과 욕망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비움과 나눔으로 응답하신 것이다. 신앙은 결핍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비움과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 때로는 밥 때문에 비루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한 주간 소위 빵을 위해 고생하고도 주일에 다시 모여 미사를 드

추석의 첫 번째 주제인 ‘감사’와 두 번째 주제인 ‘탐욕’의 한계를 극복할 ‘나눔’(사극린)은 그대로 연결된다. 감사와 나눔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습관이고 훈련이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내일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지금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가 내일 또한 나눌 수 있으리라.

그런 감사와 나눔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길, 그런 공동체가 되길. 아멘. ■■■



발가벗긴 진실

전영민 수산나

전 해오는 한 전설에 의하면 어느날 '진실' 과 '거짓' 이 마주쳤다고 한다. '거짓' 이 '진실' 에게 날씨가 참 좋다고 말을 건네니 '진실' 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숨이 나온다. 왜냐면 정말로 날씨가 좋았던 것이다. '진실' 과 '거짓' 은 많은 시간을 함께보낸다.

어느강가에 이르렀다. '거짓' 이 '진실' 에게 물이 맑아 수영 하기에 좋겠다고 고드긴다. '진실'이 강물에 발을 넣어보니 정말 쾌적한 기분이었다. '진실' 과 '거짓' 은 옷을 벗고 강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거짓' 이 물에서 나와 '진실'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렸다.

화가난 '진실' 이 강에서 나와 '거짓' 을 찾아 자신의 옷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거짓' 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노출된 '진실' 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멸시로 등을 돌려 버린다. 불쌍한 '진실' 은 창피함을 못이겨 그만 물속으로 영원히 잠적해 버린다. 그 때부터 '거짓' 은 '진실' 의 옷을 입고 세상을 돌아 다니면서 진실인 척 하는 것이다.

탐욕과 허영에 날뛰는 사람들, 특히 인간사회의 상류층에서 그들을 충족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은 절대로

적나라한 '진실' 을 마주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은 제세상인듯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며 온갖 비행을 하는 것이다. 진실이 감춰진 세상, 자신 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앞에선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하게 복종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게는 대 놓고 멸시하는 천박한 사람들은 자신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몇겹의 거짓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합류할 것인가. 세상은 원래 그런거다 하며 방관하는 태도가 합당한 것인가.

Bertholt Brecht (1898- 1956 독일의 극작가 서정시인)는 이런 말을 남겼다.

" 누군가가 진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실을 아는사람이 그것을 부정하면 그는 범죄자이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하셨다. 그 말씀인즉, 주님은 우리 삶속의 진리이시며 그 진리안에 우리가 가야할 바른길이 있는 것이다. 2000 여년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직시한 것이다.

라틴어 Exercitium의 의미는 연습 이라는 뜻이고 "Exerzitien - 피정" 카톨릭의 전문적인 표현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과 함께 하는 여정,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왔는지, 자신 안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다짐해 보는 것이 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 일상생활에서 얹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겐 꼭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관례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고독한 상태를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 들인다는 태도이다.

내 육체와 마음의 눈을 감고 정적 속에서 주님과 마주 한다. 이 때, 내 생활속의 비참함을 주님께 일일이 나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고요의 공간으로 나를 인도하시어 요람같은 평온으로 안겨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다. 침묵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양심성찰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치 않으신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한다. 매일의 삶이 힘이 들고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휴가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듯이 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잠시 쉬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방향의 길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고 하느님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신앙 생활인 것이다. ■■■



7월 13일 에얼랑엔 공동체 미사 및
NaturaSKI 부제서품 25주년 축하식



7월 13일 에얼랑엔 공동체 미사 후 단체 사진



7월 13일 에얼랑엔 공동체 미사 후 식사

제 34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묵상회를 다녀와서

우시현 아그네스

어느 금요일 미사후 신부님께서 공문을 보여주셨다. 묵상회 신청서였다. 미카엘라는 기뻐서 당장 신청하자고 했지만 그때부터 나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이 초대 자리에는 나는 누구와 갈 것 인지... 우리 집 세 명의 식구 중 한 명은 강아지 마리를 돌봐야 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시작된 독일생활에 벌써 지쳐버린 우리 가족이 주님의 성령으로 재충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덧 신청 마감의 날짜가 다가왔을 때 나는 혼란스러움에 공문을 다시한번 찬찬히 읽기 시작하였다. '이 자리는 누가 가야되지?'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마르 16,4)

주제로 적혀있던 이 성경구절이 나의 마음에 ‘쿵’하고 울려 퍼지고 이미 초대받은 나와 카타리나는 기쁜 마음에 들떠있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이 초대 자리에 방해할 하였지만 나에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고, 무사히 우리 가족 모두는 저마다의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게 되었다. ■■■



제 34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묵상회 1

제 34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목상회를 다녀와서

전정화 미카엘라

지난 8월 14 부터 17까지 삼박사일 일정으로 독일의 본 지역의 Kardianl Schulte Hause 에서 유럽 한인 성령 쇄신 목상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한국 성령 쇄신 세미나에서 가장 인기있는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인천 교구, 이주해양 사목부)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각지에서 모인 한인 천주교 신자 10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목상회에 초대되기 전부터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주일 미사와 성경 말씀,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목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내 안의 들보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동안 헛된 것에 집착하여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위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왔던 저의 어리석음에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이 제 삶의 제 1순위라고 말로만 떠들 뿐 실제 행동은 나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 중 제 1 계명조차 온 마음을 다해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상회에서 가장 기대가 되었던 기도와 안수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오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상회를 다녀온 이후에 저는 그동안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신 섭리 안에서 받았던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효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 (갈라5장 22-23절)를 내 삶 안에서 탐스럽게 맺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뮌헨 본당과 공소의 모든 교우분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써 다음에 있을 성령쇄신 목상회에 참석하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34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새신 묵상회 2



7월 20일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가정미사



7월 27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미사



8월 11일 본당 미사 전재현 베네딕도 신부님 방문



8월 4일 미사 후 손님 신부님들과 식사



8월 11일 미사 후 전재현 베네딕도 신부님과 식사 1



8월 11일 미사 후 전재현 베네딕도 신부님과 식사 2

2024년 바이에른 가톨릭 한인 공동체 연합 피정 안내

- 일시: 10월 4일(금) 17시 - 6일(주일) 13시
- 장소: Diözesanhaus Vierzehnheiligen
(Vierzehnheiligen 9, 96231 Bad Staffelstein)
- 주제: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 참가비: 1인당 100 유로(청년: 80 유로)
- 참가신청: 3월 31일 까지, 각 공동체별로 신청

바이에른 4개의 공동체(뮌헨,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레겐스부르크)가 함께 모여 피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정(避靜)이란 피세정념(避世靜念), '일상/세상을 피해 고요히 생각한다, 고요함에 머문다'는 뜻으로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설명: 원래 소요비용은 2인실 기준 1인당 163.8유로(숙소 2박 107.8유로 + 식비 4식 51.8유로)이나 뮌헨 교구의 지원과 찬조(Spende)를 받아 보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인실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신청비에 20유로가 추가됩니다.
(원금액: 1인실 기준 1인당 183.8유로)

⇒ 신청자가 확정된 이 후 일정과 세부사항(차량이동, 준비물 등)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은 15세 이상이지만, 혹 15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아이들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er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